學術調査報告 9冊

龍仁 甫羅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金性泰 · 蘇相永 · 李　植

2000

畿 甸 文 化 財 硏 究 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 표지사진
이필중 묘갈

目　次

Ⅰ. 머리말 ····· 5

Ⅱ. 주변환경 ····· 6

1. 자연지리적 환경 ····· 6

2. 고고학적 환경 ····· 6

Ⅲ. 조사내용 ····· 11

1. 고고 · 유교유적 ····· 11

1) 고고유적 ····· 11

2) 유교유적 ····· 13

2. 민 속 ····· 16

1) 조사개요 ····· 16

2) 조사내용 ····· 17

3) 소결 ····· 24

Ⅳ. 맺음말 ····· 25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도면 2. 보라지구 현황도(1/10,000)
도면 3.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토기저부
도면 4.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토기

도 목차

도 2. 한산이씨 양동공파 설서공종중 가계도
도 2. 박철자의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도 3. 박철자 가옥의 장독대

사진 목차

사진 1. 보라지구 전경
사진 2. 보라공동묘지 전경
사진 3.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원경
사진 4. 보라리 유물산포지 1 근경
사진 5.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무문토기
사진 6.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경질토기 저부
사진 7.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전경
사진 8.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기와
사진 9.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토기
사진 10. 한산이씨 세장 묘원 전경
사진 11. 이필중 묘갈
사진 12. 이필중 묘갈 부분
사진 13. 이이장 신도비
사진 14. 조연사당 전경
사진 15. 조연사당과 양경공파 종가
사진 16. 조연사당의 내부 중수문
사진 17. 조연사당의 내부
사진 18. 조연사당의 건물 정면
사진 19. 보라3리 입구의 느티나무
사진 20. 보라3리 연자매와 돌절구통
사진 21. 박철자 가옥의 내부 전경
사진 22. 박철자 가옥의 마당에서 본 대문 및 사랑채
사진 23. 박철자 가옥의 장독대

Ⅰ. 머리말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보라리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 5월 25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용역계약을 맺고 2000년 5월26일부터 7월 20일에 걸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988,000㎡(298,870평)으로 해발 50~100m 내외의 구릉지대가 대부분으로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 농경지가 자리잡고 있고 개발지구내에 마을은 위치하지 않는다.

현장조사는 고고, 민속의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고고분야는 문헌조사와 주변지역의 유적 분포현황과 지형으로 볼 때 선사유적, 고분(고려시대), 건물지, 유교유적(조선시대분묘)의 발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민속분야는 개발지구내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근마을을 조사하여 택지개발로 인해 변화될 이 지역의 민속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부담하였으며, 관계된 모든 자료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금번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 고고분야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소상영(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민식(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윤승희(성균관대 대학원)

윤명준(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년)외 2명

○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 주영하(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

조 사 원 : 이화여대 대학원생 3명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은 장경호의 지휘아래 김성태가 총괄하였으며, 고고분야는 소상영, 유교분야는 이민식이 담당하였다. 사진은 소상영이 촬영하였고, 유물의 세척과 마킹, 제도편집은 윤승희, 윤명준이 담당하였다. 본문은 소상영, 이민식이 작성하여 이를 김성태가 검토한 후 장경호가 최종 수정 가필하였다. 민속분야는 주영하가 현장조사 및 원고를 작성하였다.

Ⅱ. 주변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동경 238°10′~201°30′, 북위 398°30′~430°10′에 걸쳐 있다. 동쪽은 이천시 · 광주군, 남쪽은 안성시 · 평택시, 서쪽은 수원시 · 화성군 · 시흥시, 북쪽은 성남시 · 광주군에 접해 있다.

용인시는 광주산맥의 지맥이 기복하여 각처에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변의 인접도시를 내려다보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하천은 남북주향의 단층을 따라 흐르는데, 주요하천으로는 탄천, 금령천, 구흥천, 청계천, 신갈천등이 있다. 하천을 따라 충적지대가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농경지는 주로 얕은 구릉상에 계단식으로 경작되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기흥읍은 용인시의 서부지역에 해당한다. 기흥읍 일대는 탄천과 오산천의 영향으로 넓은 하곡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곡지를 중심으로 큰 촌락이 발달되어 있다.

기흥지구는 행정구역상 보라리와 공세리 일대이다. 지형은 해발 50~100m 내외의 얕은 구릉지대로 오랫동안의 풍화, 침식을 받아 경사가 완만한 산록을 갖는 저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토양은 구릉성 암쇄토와 적색토가 대부분이며 저지대에서 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충적토의 발달을 예상하였으나 하천 정비공사와 아파트 단지의 개발로 지형이 크게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의 하천으로는 안성천의 지류인 지곡천과 공세천이 있다.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서쪽방향으로 흐르는 지곡천은 지곡리 부아산 하단 서쪽에서 발원하여 보라리로 흐르는 하천으로 민속촌 경내를 경유하여 신갈저수지로 유입한다. 조사지역의 남쪽에서 서쪽방향으로 흐르는 공세천은 공세리 동쪽 자봉산 하단 남쪽에서 발원하여 공세리 탑안마을 앞을 지나 역시 신갈저수지로 유입된다.

개발지역의 서쪽에 1954년에 준공된 신갈저수지(만수면적 698,800평)가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놓여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평행하게 393번 지방도가 뚫려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국민속촌이 위치한다.

2. 고고학적환경

용인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부터 도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지표조사는 1988년에 국립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1] 조사단은 기존에 알려진 유적을 재확인하고 하천변과 작은구릉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유적도 발견 보고하였다. 용인시의 문화유적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1996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서이다.[2] 이 조사에서는 모두

1) 국립중앙박물관, (1988), 『신암리 Ⅰ』,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pp67~105.

85개소의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5개소의 구석기유적이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용인시의 문화유적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토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아파트 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형이 변모하여 많은 유적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지표조사가 시행된 보라지구는 용인시 기흥읍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의 주요유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상갈리 빗살무늬토기 산포지[3]

이 유적은 기흥상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으로 1997년에 명지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동편으로 북쪽에 경기도박물관이 인접해 있다. 전체 시굴조사면적은 1만평 정도이나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면적은 10평 정도이다. 유물이 분포하는 면적이 좁고 주거지 등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포함층 유적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빗살무늬토기가 대다수이며, 마제석부 1점과 용도미상의 토제품 3점이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의 문양 구성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 후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외에 고려시대 토광묘 1기와 조선시대 생활유적도 조사되었다.

2) 지곡리 1~3호 도요지[4]

지곡리 사기막골에 위치하는 도요지이다. 1,2호 도요지는 19세기말에 사용된 조선시대 黑磁, 옹기 요지이고 3호 도요지는 17세기대 백자도요지이다. 유물은 1,2호 도요지에서 흑자, 옹기편과 요도구 등이 채집되었고, 3호 도요지에서 백자편과 요도구, 가마벽편 등이 채집되었다. 1, 2호 도요지는 수로공사와 경작으로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3호 도요지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安養寺址[5]

공세리 탑안마을 264번지 일대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사지로 오층석탑(경기도문화재 자료 42호)과 석조여래좌상이 남아 있다. 마을전체에 고려시대 기와와 토기편이 분포한다. 오층석탑은 고려중기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륜부와 기단부의 면석 4매중 2매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2)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용인시의 문화유적』.
3) 명지대학교박물관 · 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앞의 책』.
4) 용인시외, (1999), 『앞의 책』, pp45~55.
5)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기흥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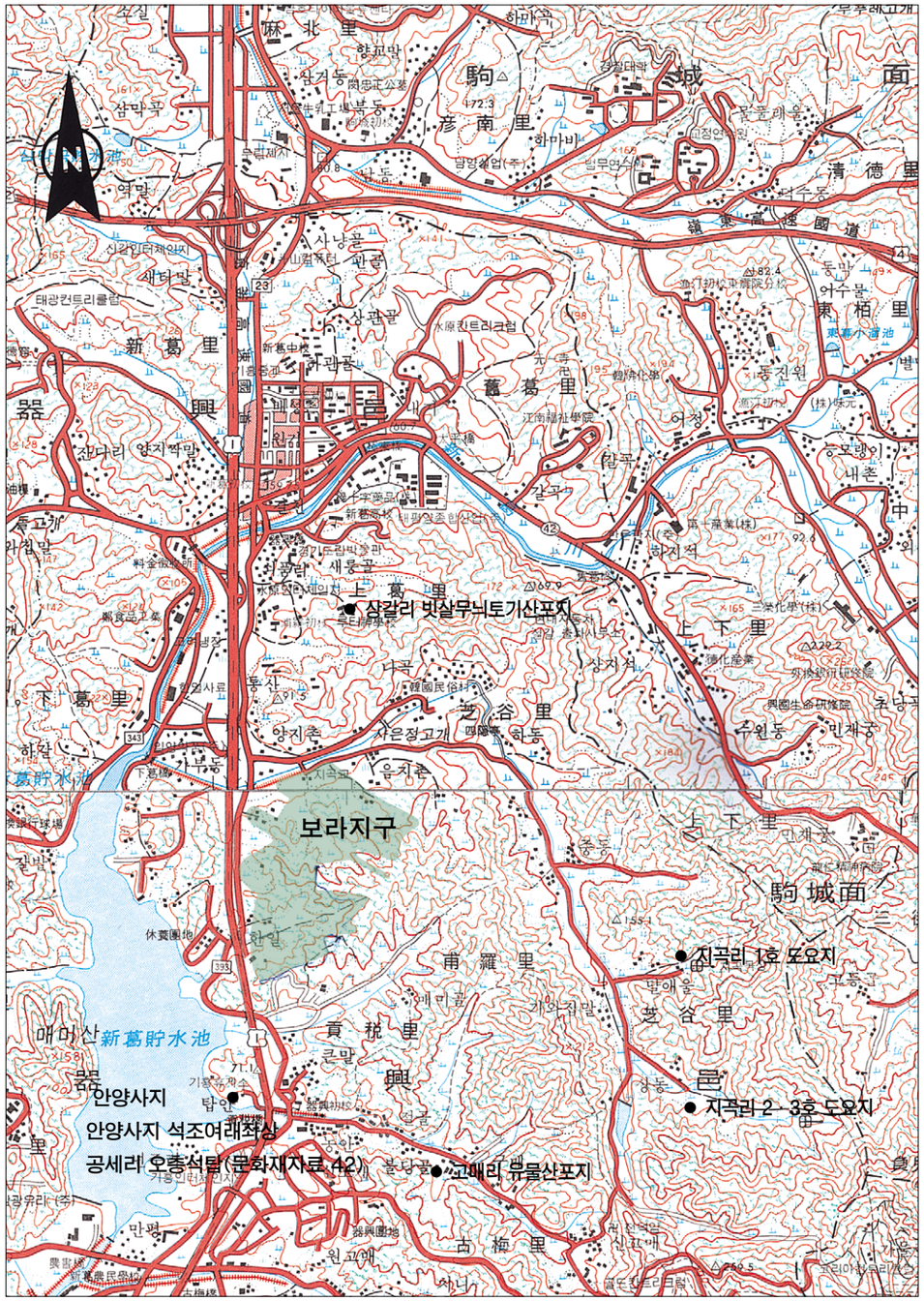
양호하다. 옥개석은 위로 향할수록 현저한 체감비를 보이고,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 있다. 현 높이는 250cm 이다. 석조여래좌상은 목부분이 절단되어 있고 左手가 결실되어 있는 등 손상이 심하다. 불상의 조각기법, 형태로 볼 때 고려중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높이는 70cm 정도이다.

4) 고매리 유물산포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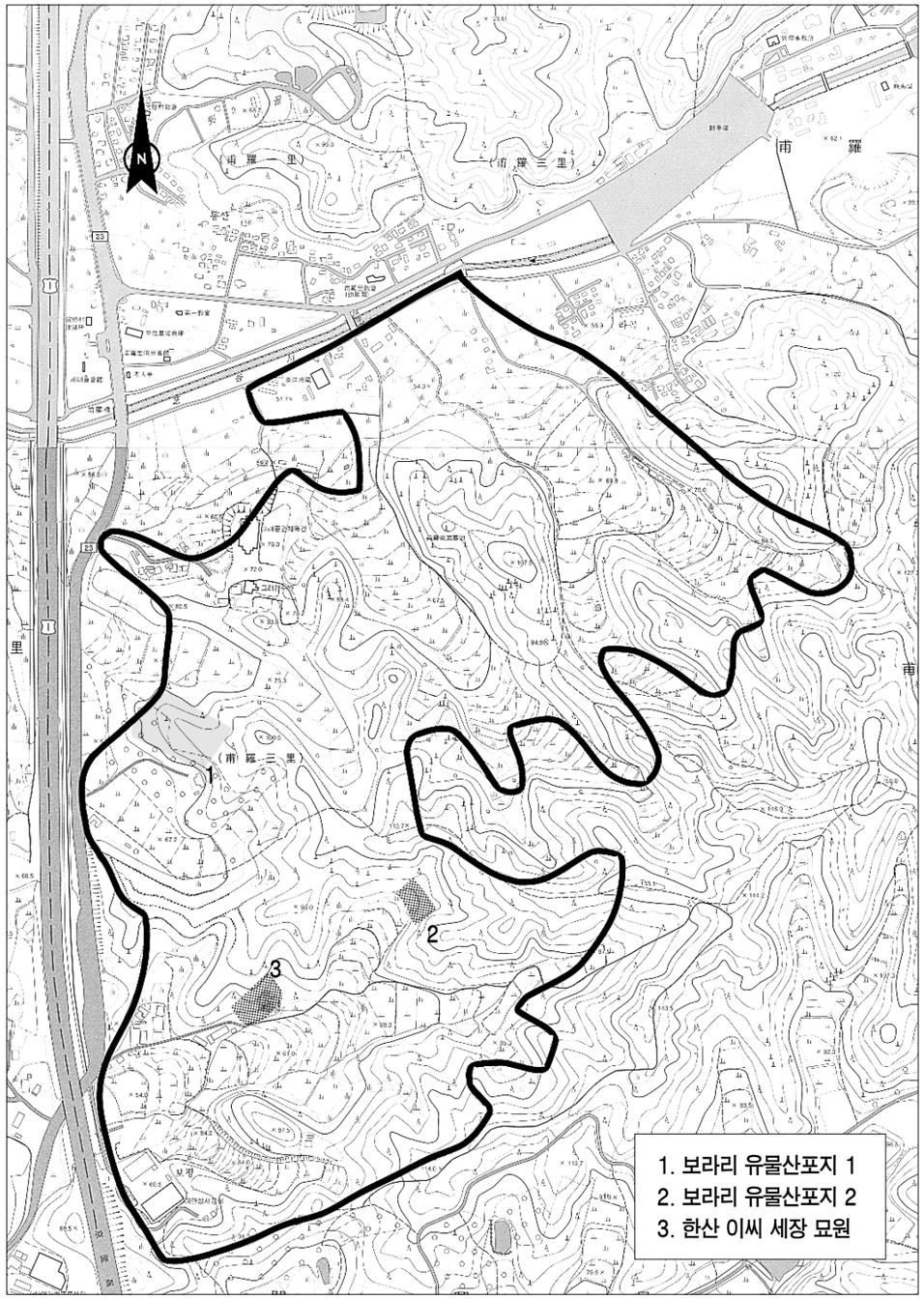
고매3리 불당골 일대에 위치한 유물산포지이다. 막새류를 포함한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토기, 백자, 분청사기편이 산재하고, 마을의 지명이 불당골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사지가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구갈리에서 보고된 무문토기 출토지와 백자산포지[7]를 비롯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6)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앞의 책』, pp1032~1044.
7) 명지대학교박물관, (1997), 『기흥구갈3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및 주변유적위치도



도면 2. 보라지구 현황도(1/10,000)

Ⅲ. 조사내용

1. 고고 · 유교유적

조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보라리 일대로 택지개발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이다. 면적은 988,000㎡(298,870평)으로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393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북쪽으로 한국민속촌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해발 50~100m 내외의 얕은 구릉지대로 계곡을 따라 계단식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보라지구는 지형이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선사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기흥상갈지구와 인접해 있어 이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였다.

전 지역을 개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쪽의 완만한 구릉지역에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에 조사를 집중하였다. 조사방법은 지표면에 노출된 유구와 유물의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확인된 유적은 사진촬영과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였다. 조사시기가 여름인 관계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간 교차확인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무문토기 산포지 1개소, 고려시대 추정건물지 1개소 및 선현묘역 1개소를 확인하였다.

1) 고고유적

(1) 보라리 유물산포지 1(도면 3, 사진 3~6)

- □ 소재지 : 보라 3리
- □ 시 대 : 청동기, 고려
- □ 종 류 : 유물산포지

393번 지방도로를 타고 용인에서 오산방향으로 가다 보라교 방향으로 뚫린 우회도로의 동쪽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계단식 논의 배수를 위해 절토한 구릉의 단면에서 무문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수습하였다.

유적은 해발 60m 내외의 얕은 구릉으로 전체적인 토양은 갈색 점토층이다. 조사지역에 수풀이 우거져 많은 유물이 채집되지는 않았으나 퇴적층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면적은 약 1.000평이다.

① 무문토기편(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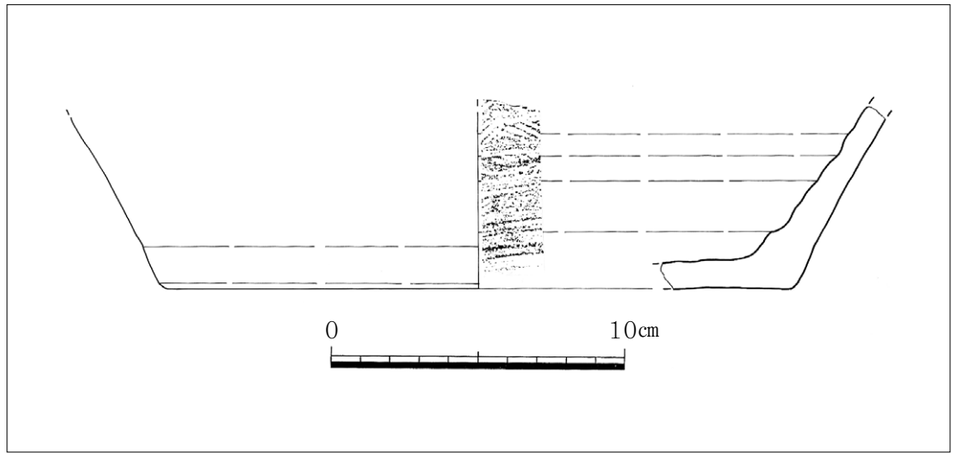
배수로의 단면에서 채집되었다. 모두 3cm 내외의 동체편으로 기형을 파악할 수는 없다.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편으로 판단되나 한점(사진 20-5)은 표면에 타날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백제토기의

가능성도 있다.

②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3, 사진 6)

배수로의 단면에서 채집되었다. 동체와 저부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외면과 내면에 타날의 흔적이 남아 있고, 단면에 동체와 저부를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뚜렷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색조는 옅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대형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복원저경 21.4cm, 현높이 5.8cm



도면 3.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토기저부

(2) 보라리 유물산포지 2(사진 7~9)

□ 소재지 : 보라 3리

□ 시 대 : 고려, 조선

□ 종 류 : 유물산포지

한산이씨 세장묘원 옆 소로를 따라 동북쪽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해발 70m 정도이며 산중턱을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고려시대의 기와와 경질토기편이 주류를 이룬다. 유물이 분포하는 범위와 밀집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고려, 조선의 기와와 토기편이 함께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전에 시굴조사가 필요하며, 면적은 약 200평 정도이다.

① 기와(사진 8)

2점 모두 숫기와로 마모가 심해 와도흔, 포흔, 정면방법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태토는 점토에 굵은

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옅은 회청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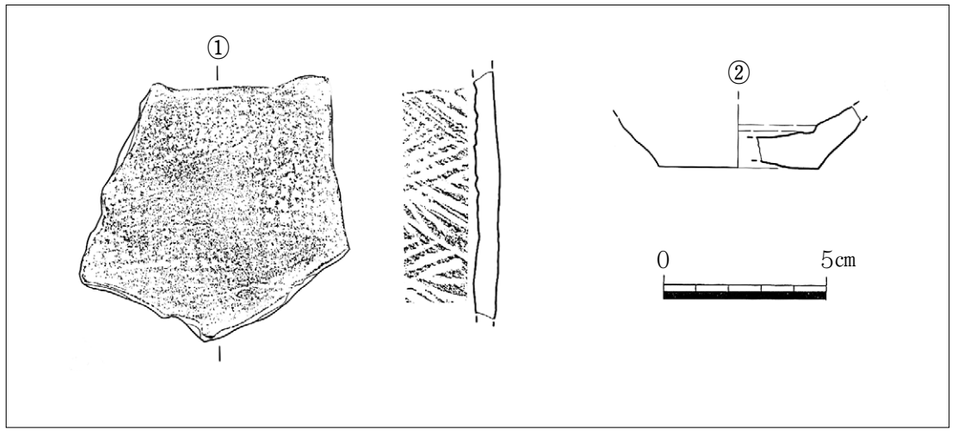
②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4-①, 사진 9-②,③)

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로 외면에 격자타날이 되어 있으며, 내면에도 타날의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고운점토에 사립이 일부 섞여 있다. 대형호의 편으로 추정된다.

③ 저부편(도면 4-②, 사진 9-①)

초벌구이 후 시유되지 않고 폐기된 자기편으로 추정된다. 내저원각이 뚜렷하며, 저부와 동체를 따로 만들어 이어붙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태토는 고운점토에 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추정 저부지름 : 5.0cm, 현높이 1.9cm



도면 4.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토기

2) 유교유적

(1) 한산이씨 세장 묘원(사진 10~13)

□ 소재지 : 보라 3리

□ 시 대 : 조선

□ 종 류 : 선현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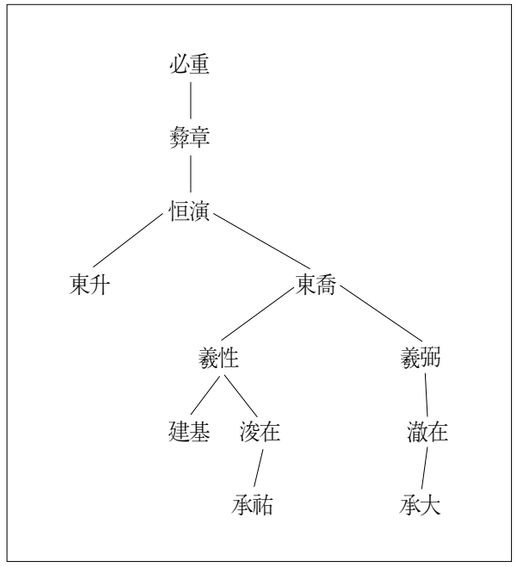
화성군에서 393번 지방도로를 타고 신갈읍으로 진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육교를 지나면 우측으로 수원균농종균배양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타난다.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의 좌측 산자락에 韓山李氏

良度公派 說書公宗中의 世葬 墓苑이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肅宗代 說書를 지낸 李必重(1672-1713)부터 7대 후손까지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던 世葬地이었으나 근래에 墓域을 새로 정비하면서 納骨 墓苑으로 보수 단장하였다. 묘원의 입구 좌측에는 李必重墓碣과 李彝章神道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으며 신도비의 우측 능선에 세장 묘원(사진 10)이 자리잡고 있다.

세장 묘원에 안장된 인물들의 가계도와 그 행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ㅇ 李必重(1672-1713) : 世子侍講院說書, 說書公宗中의 始祖
- ㅇ 李彝章(1708-1764) : 司憲府大司憲, 諡忠正, 說書公宗中의 中始祖
- ㅇ 李恒演(1742-1812) : 尙州牧使
- ㅇ 李東升(1769-1813) : 處士
- ㅇ 李東喬(1804-1847) : 金山郡守
- ㅇ 李羲性(1822-1905) : 光州牧使
- ㅇ 李羲弼(1838-1892) : 處士
- ㅇ 李建基(1846-1867), 李浚在(1865-1924), 李澈在(1860-1892) 外



도 1. 韓山李氏 良度公派 說書公宗中 家系圖

묘원에 갖추어진 옛 석물로는 18-1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주석, 향로석, 상석, 고석, 혼유석이 있을 뿐이고, 장명등과 문인석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 금석문으로는 이필중묘갈과

이이장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가. 李必重 墓碣(사진 11, 12)

李必重(1672-1713)은 肅宗代의 文臣으로 본관은 韓山, 자는 鼎叔, 호는 陶谷이고 牧隱 李穡(1328-1396)의 11대손이자 梅鶴堂 晩益(1642-1691)의 아들이다. 1696년(숙종22) 成均館에 들어가 學業을 닦았으며 1706년(숙종32) 備邊司에서 학술이 精深하고 行誼가 純固한 인물을 뽑을 때 형조판서 趙相愚(1640-1718)의 천거를 받았다. 1710년(숙종36) 문과에 급제한 뒤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世子侍講院說書에 이르렀으며, 사후 20년이 지난 1753년(영조29)에 아들 彝章(1703-1764)이 貴하게 되어 贈嘉善大夫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갈(사진 2, 총높이 약 310㎝)은 영조대에 유행하던 方趺蓋石 양식을 갖추고 있다. 방부(높이 62㎝, 폭 139.5㎝ 두께 98.5㎝)와 개석(높이 약 50㎝ 폭 131.5㎝ 두께 97.5㎝)은 화강암을 다듬어 마련하였으며 비신(높이 198㎝, 폭 80.6㎝, 두께 43.8㎝)은 烏石을 사용하였다. 篆額을 '贈吏曹參判行侍講院說書李公墓碣銘'이라 올리고 碣題를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左副賓客行宣敎郎 世子侍講院說書李公墓碣銘幷序'라고 하여 비석의 종류가 묘갈임을 밝히고 있다. 묘갈문은 領議政 豊原府院君 趙顯命(1690-1752)이 撰하고 昌寧 曹允亨(1725-1799)이 書幷篆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3甲申(1764, 영조40) 月 日立'이다.

이필중 묘갈이 조성되던 英祖代는 조선의 고유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조선후기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로, 미술사적인 시대 구분에 의하면 眞景時代의 최전성기에 해당한다. 中華文化를 이루었던 明이 오랑캐인 後金에게 멸망당하자 조선은 明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조선이 곧 中華라는 조선중화사상을 표방하고 문화의 각 분야에서 조선고유색을 顯揚해 나가니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조선의 고유한 양상이 유감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서예 분야에서는 玉洞 李𣏌(1662-1723)가 조선화된 王羲之體와 石峰體의 토대 위에 北宋의 米+丨서법을 가미하여 東國眞體를 창안해 내었으며 그의 뒤를 이은 白下 尹淳(1680-1741)을 거쳐 員嶠 李匡師(1705-1777)에 이르러 동국진체가 완성되었다. 松下 曹允亨은 바로 원교 이광사의 제자로서, 글씨의 각 체에 능하였는데 특히 楷書가 매우 정교하여 정조대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모든 왕실과 조정의 金石과 扁額 일체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관직은 참판에까지 이르렀다. 이필중묘갈은 조윤형이 唐의 명필 柳公權(778-865)의 서법을 익혀 쓴 작품으로 글씨에 군더더기 살이 없으며 險勁하기가 칼날 같아 유공권체의 骨氣만을 얻어낸 작품이다(사진12). 유공권 서법으로 쓰여진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得意作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나. 李彝章神道碑(사진 13)

李彝章(1708-1764)은 英祖代의 문신으로 자는 君則, 호는 水南이고 說書를 지낸 必重의 아들이다. 1724년(경종4) 사마시에 합격하고 1735년(영조11) 문과에 급제한 뒤 관직에 나아가 副校理를 지내고 外職으로 나아가 長湍府使와 東萊府使를 역임하였으며 大司憲에 이르렀다. 1762년(영조38) 都承旨에

재직시 영조대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려하여 이를 적극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후인 1788년(정조12)에 忠正의 시호를 하사받았는데, 諡法에 이르기를 慮國忘家를 '忠'이라 하고 以正服之를 '正'이라 하였다. 이조판서를 역임한 靖憲公 徐浩修(1736-1799)가 둘째 사위이다.

이이장이 돌아간 직후 大提學 洪良浩(1724-1802)에게 신도비문을 받아 놓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뒤로 미루었다가 199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립하게 되었다. 신도비(사진 13, 총높이 약 456㎝)는 英祖代에 유행하던 拙樸無巧의 方趺蓋石 양식을 선택하였으며 이 양식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신도비중의 하나인 慶恩府院君 金柱臣의 神道碑(1826)를 모델 삼아 정성껏 조성하였다. 최근에 세워진 가장 뛰어난 신도비중의 하나로 규모와 양식면에서 이 시대를 대표할 만 하다.

문양을 새기지 않은 마름모꼴의 방부위에 烏石의 비신(높이 291㎝)을 세우고 그 위로 팔작지붕 형태의 개석을 얹어 놓았다. 碑題를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贈諡忠正韓山李公神道碑銘幷序라 하고 전액을 '忠正公水南李先生神道碑銘'이라고 陽刻해 놓아 비석의 종류가 신도비임을 밝히고 있다. 비문은 洪良浩가 撰하고 현대의 명필인 南田 元仲植 선생이 글씨를 썼다. 그리고 비신의 우측에 새겨진 추기는 1996년 10월 8대손 成珪가 敬撰한 것이다.

2. 민 속

1) 조사 개요

(1) 조사지역 개관

옛 문헌자료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용인시는 대략 용구현(龍駒縣) · 처인현(處仁縣) · 양지현(陽智縣)의 통폐합에 따라 그 변천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8] 보라지구가 속한 기흥읍은 1914년 부 · 군 · 면 개편 당시 지내면의 영통리 지역과 기곡면 일원을 합치고, 구흥면과 내읍(內邑) 일부를 합친 지역이며, 기곡(器谷)의 기(器)와 구흥(駒興)의 흥(興)을 각각 따서 오늘날의 기흥읍이 되었다.[9]

보라지역에 해당하는 기흥읍 보라리(甫羅里)는 조선 정조 13년(1789)에 나온 《호구총수》에도 '보라산리'로 나오는 만큼 오래된 지명으로 여겨진다. 현재 보라산은 별도의 지명이 없으나 보라3리가 위치한 양평마을의 뒷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보라1~3리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라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보라1리는 다른 말로 통리 · 통미 · 통메 · 통산으로 불린다. 아마도 마을 옆에 통묘산(通妙山)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보라3리는 보라산의 정남기슭에 위치한다. 다른 말로 양지촌 · 양지말 · 양촌마을로 불린다. 통메마을 동쪽 양지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보라2리는 보라3리의 남쪽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다른 말로 음지촌 · 음지말 · 은촌마을이

8)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용인군, p4.
9) 주 8의 책, p7.

라 한다. 통메마을 동쪽 음지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보라지구는 보라2 · 3리의 남쪽으로 원래 구릉지 야산이었던 곳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보라2 · 3리 사람들의 선산이 있거나 밭이 있었던 곳이다.

(2) 조사 방법

이 글은 앞에서 소개한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민속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 기흥읍 보라리 일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원래 야산지역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민속 조사는 불가피하게 택지개발 지구의 주변부 마을인 보라2 · 3리 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문은 보라2 · 3리의 마을사람들이 살아온 민속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민속현상에 대한 서술은 종종 오래된 습관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오래된 습관은 현재(the present)라는 시점에서 보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난다. 그것은 실제 오늘날의 삶 속에서 전혀 실천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며, 실천은 되지 않지만 관념으로 남아 실천행위에 일정하게 관여하는 것도 있다. 또 기억으로만 남아 있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의례적 행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오래된 것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속에 대한 이해는 오래된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적 삶에서 관철되는 문화적 규칙을 밝혀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한 지역의 민속지(ethnography)를 서술하는 데는 과거성보다는 현재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20세기말의 한국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온다. 이 과정에서 외견상 드러나는 공식적인 삶의 모습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외견상으로 드러난 과거에 천착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오래된 것에만 주목하는 과거형의 민속 서술에 민속지가 머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가능한 현재적 시점에서 출발하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민속적 삶을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조사 · 서술되었다. 조사는 2000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1차 예비답사 및 2차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필자를 책임자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 내용

보라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크게 마을의 민속과 집의 민속으로 구분하여 서술된다. 마을의 민속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연행하는 민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마을의 역사와 민속적 구성, 생업경제와 생활권역, 마을조직, 그리고 마을 의례가 그것이다. 집의 민속은 집안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몇 집을 설정하여 공간의 생활, 일상의 생활, 의례 생활로 나누어 서술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두 지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거와 오늘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1) 마을의 민속

가. 마을의 구성

기흥읍 보라리는 행정적으로 보라1~5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라1~3리는 전통적인 집성촌이지만, 보라4~5리는 최근 택지개발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이다. 보라리는 보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남쪽에 형성된 마을로 역사적으로 한양조씨의 집성촌을 이루다 196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민속촌의 건립, 택지개발과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화 과정을 겪는다.

한양조씨가 보라리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약 500여 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 토착 성씨인 한양조씨는 고려말 양주의 조지수(趙之壽)로부터 출발한다. 그후 조휘(趙暉)의 총관공파(摠管公派)와 조린재(趙麟才)의 판도공파(版圖公派)로 나누어진다. 보라리의 한양조씨는 고려말 조선초에 활약한 총관공파의 조연(趙涓)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연(1374~1429년)은 원래 본관이 양주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일조를 했다. 그는 오늘날의 파주시 금촌읍 금능리에서 생활을 하다 말년에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총관공파의 선산이 모두 파주에 있어 최근까지도 보라리 한양조씨의 대종가 시제는 파주에 가서 지낸다. 조연의 시호는 양경(良敬)으로 오늘날 보라리의 한양조씨가 대부분 양경공파에 속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즉 보라리의 한양조씨는 총관공파의 지파로서 양경공파이다. 원래 양지촌과 음지촌을 중심으로 한양조씨 양경공파가 집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1960년대 개발 이후 외지로 흩어졌다. 현재 마을에는 약 30여 세대의 한양조씨가 살고 있다.

보라3리 양지촌에는 오늘날까지 양경공파의 종가와 사당이 남아 전해진다. 오늘날 전해지는 사당과 종가는 1972년 화재로 손실된 후 1973년에 본래의 규모를 짐작하여 다시 지은 것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주위에 시멘트 블록 담을 돌리고 일각문을 세웠다. 사당 안에는 조연의 위패가 감실 안에 모셔져 있으며, 향로와 향합, 그리고 제상이 있다. 매년 음력 2월 15일과 10월 15일에 사당제사를 모시며, 기일인 음력 6월 20일에 종문들이 모여 기일제사를 모신다. 종가는 사당의 왼쪽에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튼ㅁ'자형 집으로 안채는 '역ㄱ'자형이며, 대문 양쪽에 연이어 사랑채를 두었다. 원래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인데, 화재로 불탄 후 외형만 갖추고 실제 내용은 많은 변형을 했다.

해방 이후 보라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사건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다. 1968년 2월에 기공하여 1970년 7월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보라마을의 서쪽을 통과한다. 원래 비교적 외지로부터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보라리 일대는 이 일로 외지와 쉽게 연결되었다. 이때부터 토박이들이 외지로 나가 살기 시작했고, 외지인이 이곳으로 전입하는 예가 늘어났다. 그후 1974년에 보라리의 나곡마을 일대에 한국민속촌이 조성되면서 보라1리와 보라2리 사이에 포장로가 생겨 마을을 두 곳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 도로가 나기 이전에는 동쪽에 있는 지곡리까지 마차길이 나 있었으나 포장로가 생기면서 자연 자동차의 왕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라2리와 3리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후 주변의 땅값이 올라 논과 밭, 그리고 산을 가지고 있던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땅을 팔고 서울이나 인근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한국민속촌의 조성 이후 마을 대로변에 각종 식당과 여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택지개발지역에는 일부 한양조씨의 선산이 있었으나, 택지개발에 수용된 후 선산을 이전하여 인근의 상하리 일대로 옮겼다. 현재 이미 들어선 보라4리의 선경아파트 단지와 보라5리의 삼성아파트 단지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구조는 거의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대에 들어선 식당, 노래방, 호프집, 여관 등과 택지개발로 인해 생긴 부동산중개소 등은 마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징조로 보인다. 특히 마을 주민들 중에는 택지개발로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그들의 생활자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보라리 일대에서 한양조씨 양경공파 종가와 조연사당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구조를 보이는 가옥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마을 내에는 교회가 3군데나 들어서 있으며, 대부분의 집들은 양옥으로 개조하였다. 간혹 전통적인 구조를 변형하여 개조한 집도 있으나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 또 승용차를 보유한 집들도 많아 차고지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나. 생업경제와 생활권

전통적으로 보라마을의 주민들은 농업과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생업을 이어왔다. 논은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 있는 통메마을 앞의 들판과 한국민속촌이 들어선 나곡마을 근처에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논이 대부분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농사일보다는 텃밭을 가꾸든지, 인근의 신갈과 수원 등지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특히 많은 토박이들이 땅을 판 후 인근 수원과 서울로 이주를 했다. 현재 대부분의 토박이 주민들은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중에는 택지개발 보상금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박이 가옥 안이나 주변에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콩·파·옥수수·고추 등의 부식거리 채소는 직접 기르는 편이다.

일제시대까지 보라리 사람들은 구갈(舊葛)을 주된 활동권으로 생활했다. 인천에서 여주까지 이어졌던 협궤열차의 역이 구갈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이남의 동서 교통은 주로 구갈을 이용했다. 1960년대 말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수원~여주간의 국도도 개통되어 주된 생활권이 신갈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른다. 그래서 혼례식이나 회갑연과 같은 잔치는 주로 신갈읍에 있는 농협이나 뷔페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품을 살 때도 신갈과 수원에 있는 상설시장을 이용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보라초등학교가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신갈로 통학한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와 중고등학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권은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 마을 조직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양지촌과 음지촌을 중심으로 두레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노인은 없었다. 다만 음력 정월 15일경에 양지촌과 음지촌의 두레패가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었다. 아마도 일제시대 말기에 이곳의 두레패는 깨진 듯하다.

현재 보라마을에서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마을조직이 있으며,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위원회가 주변의 택지개발과 관련한 일들을 맡고 있다. 비공식적인 마을조직으로는 유지들 모임인 상조회가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30~40대가 중심이 되는 청년회의 구성원들은 거주지가 여전히 이곳이지만 직장은

대부분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미약하다. 주로 일요일에 조기축구회 활동으로 친목을 다지는 정도이다. 조기축구회는 보라1~3리에 사는 토박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보라초등학교에서 축구시합을 한다. 또 노인회와 상조회의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한다.

마을부녀회는 매월 5일 정기모임을 하는 데, 주로 마을 토박이 중에서 유지 부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부녀회 핵심 회원들의 나이는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부녀회의 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나 임기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간혹 회장에 출마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부녀회는 주로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초상, 회갑연, 노인잔치 등에 음식을 장만하고 행사 진행을 맡는다.

또 부녀회 회원 중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한 계조직이 비공식적으로 있다. 남자들은 주로 상조회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활동을 한다. 여행, 상장례의 협조, 노인잔치 등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보라2리의 경우 마을회관의 1층에 미장원을 세 주어 그 수익으로 상조회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라마을 노인회는 행정단위와 관계없이 보라3리에 있는 전체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999년 봄에 완공한 현재의 노인회관은 현대식 건물로 이곳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놀이를 한다. 노인회가 주관하여 1년 봄과 여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행을 간다. 예전에는 노인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정월 대보름에 풍물을 치며 놀았으마,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노인계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노인회는 토박이들이 핵심을 이루는데, 주로 한양조씨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라. 마을의례

보라마을의 특징적인 현상은 토박이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양조씨의 후손들이 일제시대에 이미 개화운동에 열심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신자를 양산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양조씨 양경공파의 종부인 김진술(여, 1915년생)은 원래 함경북도 출신으로 친정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으며, 자신도 5세 때부터 기독교 신자로서 생활했다고 한다. 남편과는 아버지의 주선으로 만나 혼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남편이 세상을 떠니가 전(1978년)까지는 교회를 공개적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후 교회를 나가고 있으며, 양경공파의 장손인 그녀의 장남은 미국에서 목사로서 목회활동을 한다. 그후로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며 기독교 신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양경공파의 제사의무는 신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종답과 함께 넘겨 주었다. 이것은 마을의례의 일종인 양경공파 기일제와 사당제가 종손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게 된 배경이 되며, 이로 인해 그 전통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라마을 전체에는 현재 3개의 교회가 들어와 있으며, 현재 하나의 교회가 신축 중에 있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도 기독교 신자가 비교적 많아 수원에 있는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마을내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제일침례교회이다. 원래 신갈의 장로회교회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다른 세력에 밀려 이곳으로 이주하여 교회를 세웠다. 원래 신갈의 장로회교회에 다니던 이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교회설립을 도왔다. 이후 다른 교파의 기독교 교회도 들어와 마을전체의 공동체 의례는 거의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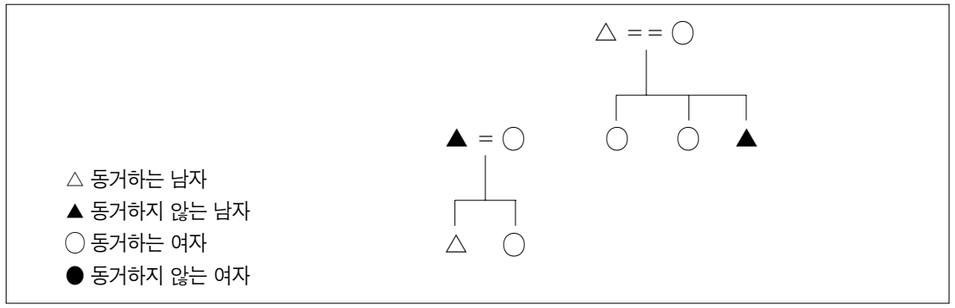
원래 보라마을에는 느티나무가 여러 군데 있었다. 기독교가 득세하기 이전인 1930년대까지 마을의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의 굿은 무당을 불러 마을굿으로 했다.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느티나무에 제물을 바치고 무당이 굿을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마을에 퍼지면서 이것을 미신으로 여겨 마을 내에서 갈등이 많아졌으며, 특히 토박이들인 한양조씨 집안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나 마을굿은 없어졌다. 현재 보라3리에는 각각 600여 년, 400여 년 정도 된 느티나무 2그루는 현재 용인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간혹 집에서 개인적으로 푸닥거리를 하거나 재수굿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2) 집의 민속

가. 공간의 생활

보라마을은 1979년 이른바 취락구조 개선사업 때 대부분의 가옥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옛 형태의 집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외형상의 변화는 급격한 반면에 실제 생활상의 공간활용은 전통적인 것과 변화상이 함께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보라3리의 박철자(여, 1945년생) 가옥의 경우 원래 '튼ㅁ' 자형 집이었으나, 수차례의 개보수를 거친 후 1988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히 개조했다. 이제 외형상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 내부공간은 완전히 아파트형으로 바뀌었다. 원래 이 집은 윗채가 안채의 구실을 했고, 아랫채가 사랑채의 구실을 했다. 그런데 안채의 경우 지붕은 기와 상태로 두면서 내부를 완전히 개조했다. 우선 부엌과 마루를 합치고 튀어나온 부엌을 경계로 하여 마당까지 넣어 거실 겸 부엌을 만들었다. 건넌방은 원래의 크기에서 더 확장하였으며, 건넌방 앞에 있던 창고자리에 목욕실과 다용도실을 두었다. 사랑채는 원래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대문 옆에 있던 외양간을 고쳐 방으로 구성했다.



도.2 박철자의 가계도 및 공간활용 정도

박철자 씨는 원래 고향이 수원으로 이곳 한양조씨인 남편을 수원에서 연애로 만나 혼인을 했다. 원래 남편은 농사를 지었으나, 1990년대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보상금으로 생활한다. 슬하에 자녀를 3녀 1남

두었다. 안채의 안방은 부부의 공간이며, 건넌방은 원래 아들의 방이었다. 사랑채에 있는 방 2개는 원래 큰딸과 둘째 딸의 방이었으며, 외양간을 고친 방은 막내딸의 방이었다. 지금은 시집 간 큰 딸이 아이들과 함께 사랑채에 거주하며, 막내딸이 본래의 자신방을, 그리고 둘째 딸이 아들방이었던 건넌방을 사용한다.

농촌의 전통적인 살림집에서 생업공간과 관련된 공간은 주로 소를 묶어두는 외양간 및 나무로 만든 구유, 그리고 그에 부속되어 소먹이를 준비하는 아궁이이다. 주지하듯이 소는 농촌에 기계화된 농기구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기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살림집의 외양간 공간은 소의 퇴진과 함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철자 가옥의 경우에도 원래 존재하던 외양간 자리를 방으로 구성하여 빈 공간 을 줄였다. 그러나 원래 있던 외부 화장실은 여전히 사랑채의 옆에 배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업과 관련된 농기구들 중에서 전통적인 소(小) 기구들은 원래 닭장이었던 곳을 창고로 만들어 쌓아두었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예전에 비해 자주 있지 않다.

원래 부엌에 부속으로 있던 장독대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옆에 우물이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장김치를 보관하는 김치광은 장독대 옆에 별도의 부속건물을 조성하여 만들었다. 원래 땔감을 보관하던 외양간 옆의 공간 역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고로 변형시켰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옥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다락을 없애고, 툇마루와 안마루를 이어서 더 넓은 폐쇄공간을 만들고, 창고 기능을 했던 광을 모두 헐고 목욕실과 세탁실을 구성했다. 지붕을 변형시키는 완전한 개조를 하지는 않았지만 천장을 막아 평면으로 만들었다. 난방시설 역시 1970년대 연탄보일러에서 1980년대 석유보일러로 바꾸었다.

이렇게 개보수한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안방과 마루가 비교적 개방형이었던 전통적인 구조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꾼 데 있다. 여름의 냉방과 겨울의 온방을 위한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생활방식 전환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도시화된 삶 속에서 외부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상은 전통적으로 이웃과 개방적으로 어울렸던 양상을 개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나. 일상 생활

한 집의 일상생활을 살피는 데는 음식활동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농사력과 관련을 맺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생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 역시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보라마을에서 수집한 음식활동은 대부분 이원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김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장음식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 먹는다. 간장 · 된장 · 쌈장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장독대에 올라 있는 독에는 묵은 간장이나 묵은 된장 정도가 담겨 있을 뿐 그외의 독에는 고추 삭힌 것이나 새우젓 정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많은 식구로 구성된 박철자의 장독대에는 총 6개의 독이 올라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박철자 씨의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인 1970년대까지 이 집에서는 간장 · 된장 · 고추장을 직접 담갔다고 한다. 간장은 음력 10월에 농사 지은 대두로 메주를 쑨 후 이것을 말려 다음해 정월 말날에 날짜를 잡아 장을 띄웠다. 이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후 간장을 떠내서 가마솥에 다렸으며, 남은 찌

고추 삭힌 것(큰독:옛날 간장독) 묵은 새우젓(중두리) 마른 나물류(큰독:옛날 간장독) 고추장장아찌(중두리) 고추장(중두리) 고추장(중두리) 묵은 된장(중두리)

도 3. 박철자 가옥의 장독대

꺼기인 메주를 절구에 어깨어서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된장을 만들었다. 고추장도 이 때 담갔다. 그러나 지금은 고추장만 담그고 간장과 된장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서 먹는다. 식구의 변화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장과 된장을 담그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 쓰이는 양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간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김장을 하여 담그며, 김치광을 여전히 사용한다. 김장김치로는 배추김치 · 총각김치 · 동치미를 주로 담근다. 아직 김치 냉장고를 사지는 않았다. 박철자 씨의 냉장고에는 플라스틱 통에 총각김치를 소량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으며, 냉장고용 김치독에 배추김치를 보관한다. 찬장은 1988년 집을 고치면서 모두 버렸으며, 지금은 냉장고가 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집에는 대형 냉장고 두 대를 갖추고 있다. 부엌이 입식으로 바뀐 것은 음식을 장만하는 데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가능한 소량의 음식을 만들고 간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엌에서 모든 조리과정을 마무리지으려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식저장 공간인 장독대와 김치광, 그리고 우물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

농사를 지을 때만해도 여름과 겨울의 식사횟수와 식사내용이 달랐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지금은 아침 · 점심 · 저녁의 세 번 식사를 한다. 아침과 저녁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점심은 국수를 많이 해 먹는다. 겨울에는 밥과 함께 김장김치 가 중요한 반찬으로 쓰이며, 나물과 생선, 그리고 장아찌가 밑반찬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나물류와 장아찌를 밑반찬으로 잘 장만한다. 질경이, 늙은 호박 말린 것, 무말랭이 등을 여름과 가을에 마련하여 밑반찬의 원료로 삼는다. 여름에는 총각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오이물김치 등이 반찬으로 식탁에 오른다. 특히 점심 때는 콩국수를 자주 먹는다. 또 계절에 상관없이 햄 · 오뎅 · 소시지 같은 공장제 식품을 구입하여 반찬으로 먹는다.

박철자 씨 집에는 부부의 한복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으며 가까운 친척의 혼인식이 있을 때 부인은 한복을 간혹 입는다. 남편은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한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 대신 양복을 자주 입는다. 평상시에는 간편한 복장을 입는 편이다. 한복은 오늘날 한국인에게 의례용으로 쓰인다. 특히 부인들의 경우 잔치에서 한복을 입지만 제사나 명절 때는 불편함 때문에 입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이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 의례 생활

박철자 씨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의례생활은 주로 조상제사와 차례이다. 기제사는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의 것으로 일년에 4번을 거행한다. 메와 탕을 마련하고 과실 · 나물 · 포 · 적을 준비하여

진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제사와 비슷하다. 다만 최근 식혜가 제사상에 오르지 않는데 비해 이 집에서는 특별히 식혜를 제사에 올린다. 이것은 시어머니 때부터 전수된 것인데, 식혜를 만든 후 건더기만 떠서 그릇에 담는다. 나물 역시 삼색나물을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무나물만을 올린다. 또 약식과 약과도 제물로 올리는 데 시어머니 생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나 지금은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만 인절미는 지금도 직접 만든다.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는 백자기를 이 집에서는 사용한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기왕에 사놓았던 스텐레스 제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백자제기는 버리지 않고 지금도 사용한다. 기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곳은 원래 마루였던 거실이다. 벽면을 향해 병풍을 친 후 제사를 모신다. 남자들은 한복이나 양복을 입지 않고 간편복을 입은 채 제사를 올린다.

박철자 씨의 시어머니는 조왕신령과 터주신령을 모셨고, 3년마다 재수굿을 집에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의 주장으로 조왕단지와 터줏가리를 없앴다. 박철자 씨 개인적으로는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와 부엌과 안방의 벽에 붙여 두었다. 그러나 독실한 불교신자도 아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보라마을 전체에서 가정신앙으로 성주신령 · 터주신령 · 조왕신령을 별도로 모시는 집은 없다.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도 있겠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소멸이라 보인다. 즉 노인층의 주류를 1930년대 출생자들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근대식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기간 중에 이러한 신앙행위가 미신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드러나는 전통적인 종교행위를 자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1920년대 이전 출생의 세대가 거의 세상을 뜬 상태에서 전통적인 신앙의 고리가 무너진 것이다.

3) 소결

본 보고서는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의 민속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보고서의 성격상 필자는 현존하는 민속현상에 주목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주변부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토박이들이 외지로 이미 이주하였고, 그 자리를 외지인들이 전입해 있는 상태라 마을 공동체의 민속이 우리 나라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전통적인 살림집 구조는 아예 없어졌든지, 아니면 개조를 거듭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점은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오래된 민속으로 보여진다.

보라리는 구성지구와 달리 마을이 택지개발에 편입되지 않아 기존의 마을구조가 사라질 위험은 없다. 그러나 기존마을은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한국민속촌의 개발로 이미 그 구조를 잃은 버린 상태이다. 특히 신갈 및 수원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했던 탓으로 일찍이 기독교가 전해져서 전통적인 민속현상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한양조씨 경양공파의 시조인 조연의 사당제와 기일제가 지금도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례에 대해서 기일제 및 사당제 날에 맞추어 진행되는 현지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경기도는 서울외곽으로서 그 면모를 바꾸어가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개발정책은 기존의 농촌구조를 도시화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분당 · 일산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결국 경기도 전역을 신도시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위

한 민속조사는 사라질 마을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심리적 · 철학적 문제는 이러한 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런 면에서 이미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었던 이 지역의 민속은 결코 과거형일 수 없다.

Ⅳ. 맺음말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은 모두 3개소로 고고유적(유물산포지, 추정건물지) 2개소, 유교유적 1개소이다. 민속유적은 사업지구내에 위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보라지구는 구릉의 사면이 완만하고 주변에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 선사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더구나 주변의 기흥 상갈지구에서 빗살무늬토기 유적이 발견된 예도 있어 조사는 선사유적의 발견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조사결과 선사유적의 징후가 발견된 지점은 1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사가 수풀이 무성한 하절기에 진행된 관계로 지표면의 정밀한 조사가 어려웠고, 지표조사의 한계상 지하 깊숙이 매장된 유적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더많은 유적이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차후 개발의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유적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라지구내에서 후속조사가 필요한 고고유적은 2개소이다. 무문토기가 채집된 유물산포지 1은 비록 많은 수의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으나 구릉의 경사가 완만하고 퇴적층이 잘남아 있어 정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유무와 그 가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와와 토기편이 채집된 유물산포지 2는 고려~조선기의 건물지로 추정되는데 유물의 분포면적이 넓지않고 지형이 일부 변경되기는 했으나 역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유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유교유적은 한산이씨 세장묘원 1개소가 확인되었다. 원래 이곳은 조선 숙종대의 李必重(1672~1713)부터 7대후손 까지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던 世葬地 였으나, 최근 묘원을 정비하여 納骨 墓苑으로 보수 단장하였다. 이 묘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李必重 墓碣과 李彝章 神道碑이다. 이필중 묘갈에 쓰여진 서체는 유공권 서법으로 쓰여진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조선후기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이장 신도비는 비록 1996년에 조성되기는 했으나 영조대의 신도비를 모델로 세워진 것으로 최근에 세워진 가장 뛰어난 신도비로 평가된다.

한산이씨 세장묘원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개발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번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비 고
1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청동기, 고려	시굴조사	시굴면적 약 1,000평
2	보라리 유물산포지 2	고려	시굴조사	시굴면적 약 200평
3	한산이씨 세장묘원	조선~현대	이전	

寫眞

사진 1. 보라지구 전경

사진 2. 보라공동묘지 전경

사진 3.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원경

사진 4. 보라리 유물산포지 1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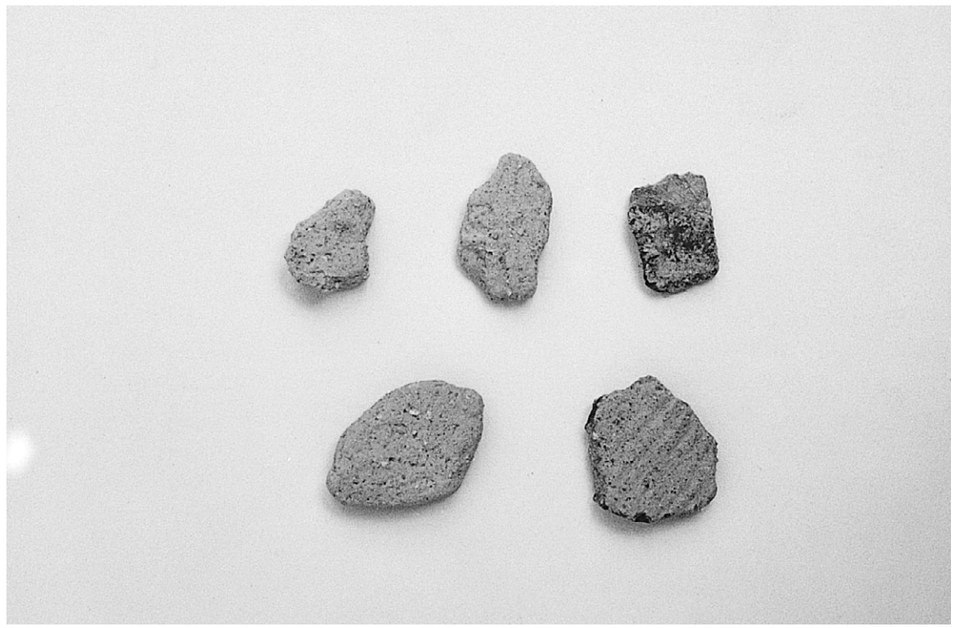


사진 5.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무문토기

사진 6. 보라리 유물산포지 1 채집 경질토기 저부

사진 7.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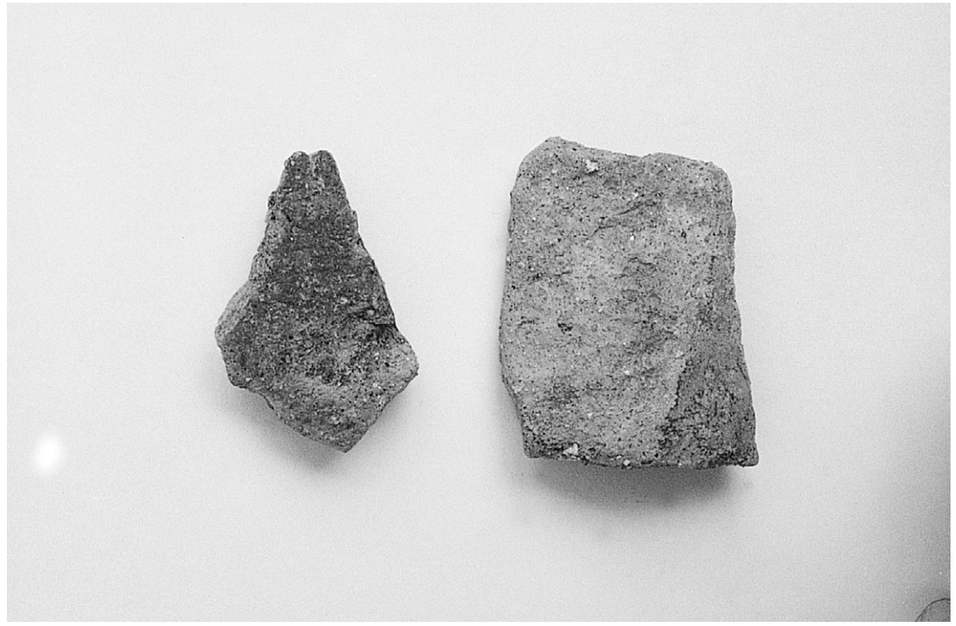


사진 8.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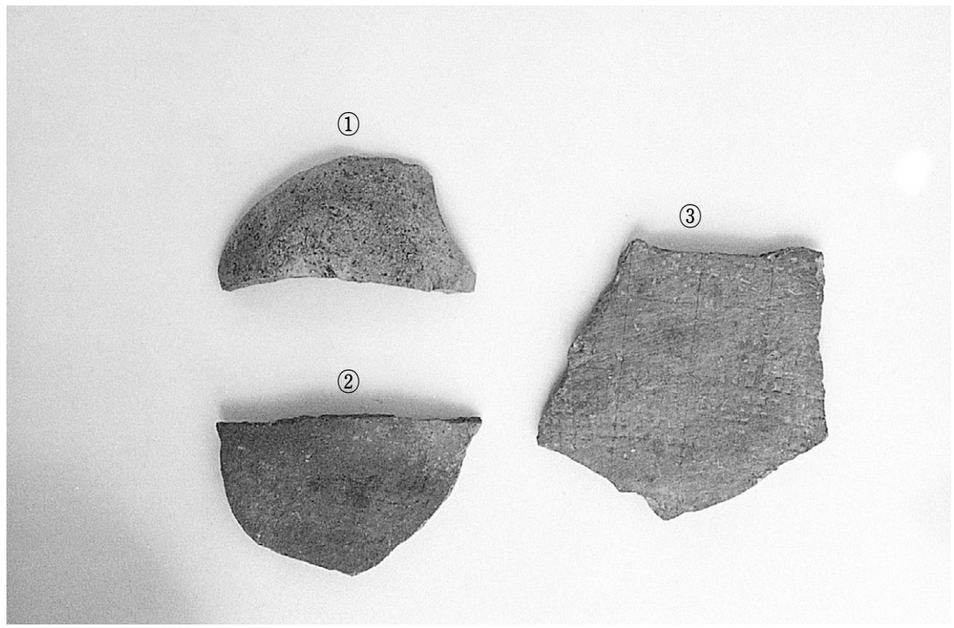


사진 9. 보라리 유물산포지 2 채집 토기

사진 10. 한산이씨 세장 묘원 전경

사진 11. 이필중 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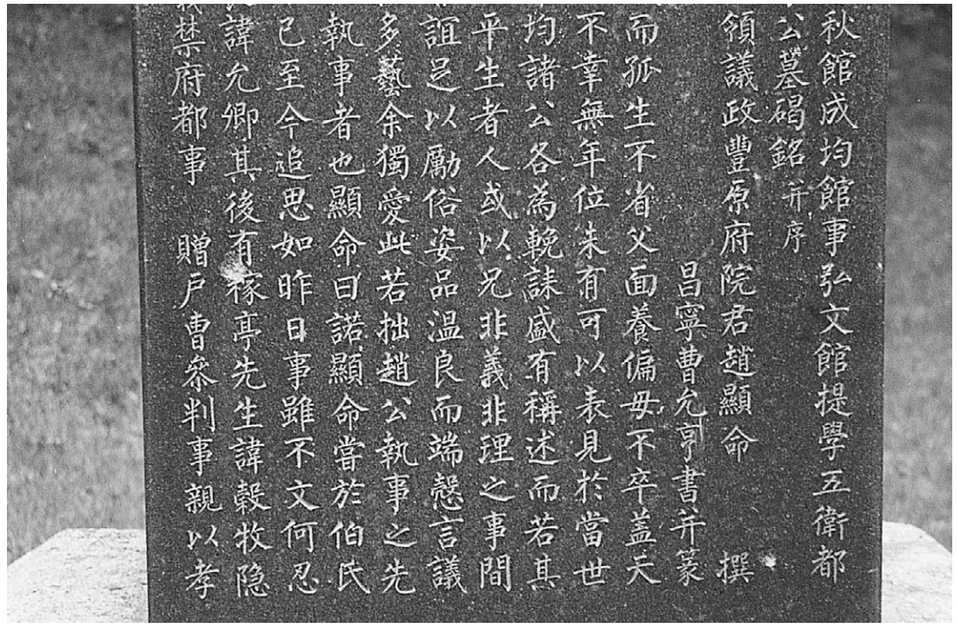


사진 12. 이필중 묘갈 부분

사진 13. 이이장 신도비

사진 14. 조연사당 전경

사진 15. 조연사당과 양경공파 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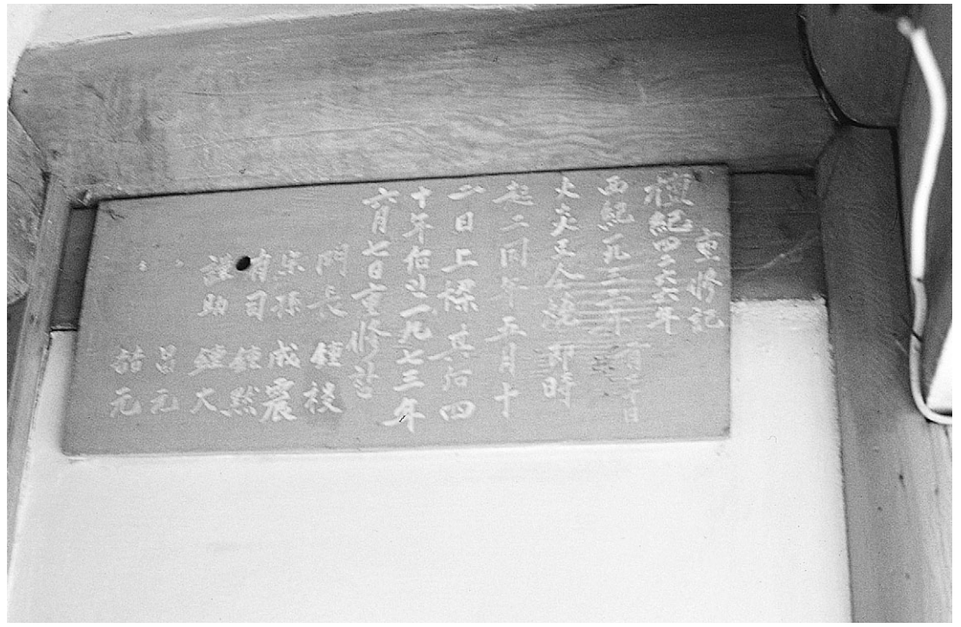


사진 16. 조연사당의 내부 중수문

사진 17. 조연사당의 내부

사진 18. 조연사당의 건물 정면

사진 19. 보라3리 입구의 느티나무

사진 20. 보라3리 연자매와 돌절구통

사진 21. 박철자 가옥의 내부 전경

사진 22. 박철자 가옥의 마당에서 본 대문 및 사랑채

사진 23. 박철자 가옥의 장독대

調査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龍仁 甫羅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發 行 日	2000年 8月 22日
發 刊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EL	(031)258-5105	FAX	(031)258-7116
執筆 · 編輯者	張慶浩, 金性泰, 周永河, 蘇相永, 李敏植			
調 査 緣 由	龍仁市 甫羅里 一帶가 宅地開發地區로 指定됨에 따라 破壞의 憂慮가 있는 文化財의 確認과 後續措置를 위한 基礎資料提供			
調 査 擔 當 者	金性泰, 周永河, 蘇相永, 李敏植			
遺 蹟 所 在 地	京畿道 龍仁市 器興邑 甫羅里 一帶			
調 査 面 積	988,000㎡(298,870평)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遺物散布地 韓山李氏世葬墓苑	靑銅器~高麗 朝鮮	2個所 2基	無文土器 外 墓碣 外	

學術調査報告 9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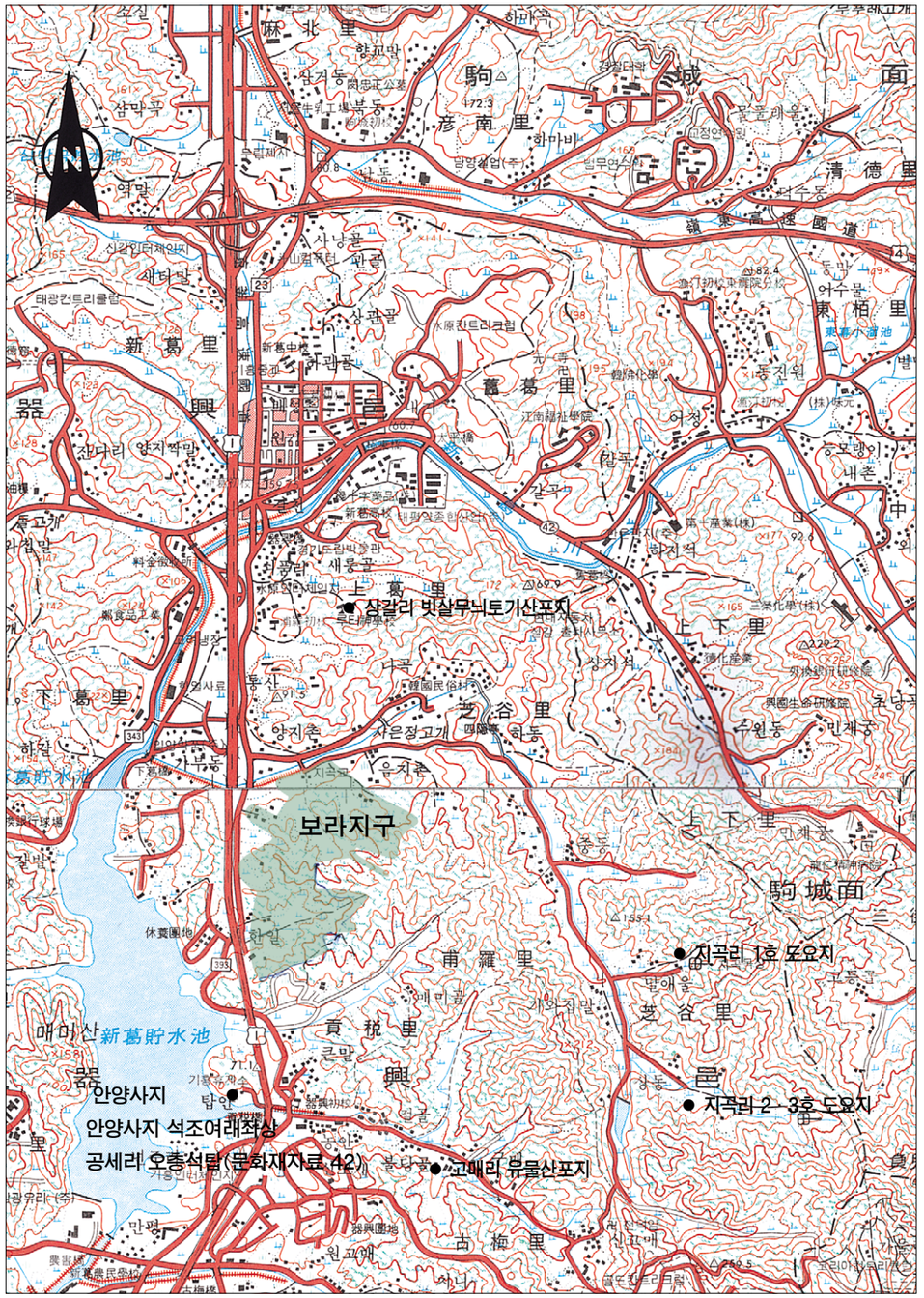
龍仁 甫羅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0年 8月 22日 印刷
2000年 8月 22日 發行
編　輯：畿甸文化財硏究院
發　行：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및 주변 유적 분포도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및 주변유적위치도